

###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1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 105:1-4 .....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29장(새 29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새 33번(스크린참조)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보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십자가를 통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눌려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당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흥왕해지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거듭나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요한일서 2:15-17 .....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하나님의 뜻과 영생

- 봉 헌(offering) ..... 325장(새 359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379장(새 204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 클리브랜드 한인회 주관 8·15 광복절 행사가 있습니다. 예배 후 행사장소로 이동해서 행사참여와 친교를 갖습니다. 가급적 카풀을 통해 이동하시고 일인당 의자 1개씩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일 친교시간 후 믿음속 모임이 있습니다. 속회 적용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 : 송현진, 속원 : 김연진, 김영희, 김희상, 석명선, 신성화/박인숙, 송금자, 유동진/이진옥, 이경자, 이진국/김성애, 정태욱, 허춘희)

###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13:1-7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아에 관련되어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달간 적용하고 함께 나눕시다.

〈말씀묵상〉 요한일서 2:15-17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5,16 절)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이 세상과 인간의 정욕의 끝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까? (17 절)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일상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 주는 쾌락의 통로들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에 빠져든다면 어느 날 우리는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은 한 번 길들어지면 이후에는 벗어나기 힘든 감각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도 바로 감각입니다. 이후로 인류는 사탄이 놓은 감각의 울무에 걸려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함축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허영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인간을 동물적 본성을 추구하며 살도록 부추기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감각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성을 상실한 악한 일들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할 때 남는 것은 육체 덩어리요, 그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삶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시편 기자의 선포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려야 할 때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